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6. 11

No.12



2016년, 극장을 밝힌 찬란한 영화들



2016년. 극장에서 만난 얼굴들

올해 상반기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영화 <사돈의 팔촌> 배급과 마케팅을 했습니다. 개봉이 딱딱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엔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개봉을 앞둔 시점엔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보다 아는 것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캐스팅했는지는 제게도 익숙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봉 이후엔 개봉 전보다도 조금 더 많이 이 영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알게 되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느끼게 되면서 영화의 안팎과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개봉 과정은 영화에 대해 잘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단 걸, 그 모든 후반작업이 매듭지어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작품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개봉이라는 걸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서울독립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네 명의 감독이 작품을 개봉했습니다. 2014년 대상 수상작으로 자신의 일에 찬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아낸 <그림자들의 섬>, 걸껍질은 굵히고 누추해질지언정 애를 쓰고 꺼안아야 하는 삶의 알맹이를 그린 2015년 대상 수상작 <스틸 플라워> 모두 올해 극장에서 관객과 만났습니다. <사루비아의 맛>, <콩나물>등에서 연약할지라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어린시절의 세계를 보여주던 윤가은 감독, 다큐멘터리 <반드시 크게 들을 것>과 단편 <지각생들>로 조금 지각하거나 ‘아마 안 될’지라도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들을 꺼내 보였던 백승화 감독은 그 세계 어딘가에서 길고 넓게 펼쳐진 이야기로 첫 장편 극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감동과 뜻밖의 기쁨, 치열한 고민과 단단한 다짐을 마련한 이들의 말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RELAY TALK’에서는 부산독립영화협회의 손민식 사무국장이 독립영화 활동가로서 되새기는 질문에 응답을 요청합니다. ‘다른 영화 말고 너’에서 들려주는 <비념> 이야기는 영화가 떼게 만드는 걸음이 얼마만큼 소중한과 벽참을 가져다주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TELL ME SOMETHING’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홍형숙 감독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몇십 페이지에 걸쳐 들어도 모자라는 이야기를 일부분이나마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끝으로 올해 서울독립영화제를 앞두고 토끼리가 추억한 서울독립영화제와의 첫 만남이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는 축제의 열기가 기다려집니다. 극장에서 만나게 될, 많은 얼굴들도요. 김송우

03 SPECIAL _ 2016년, 극장에서 만난 얼굴들

04

김정근 김하늘

08

윤가은

12

박석영

16

백승화

20 RELAY TALK _ 손민식

21 다른 영화 말고 너 _ <비념>

22 TELL ME SOMETHING _ 홍형숙

23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_ 윤자영

표지 임준형





올해도 많은 독립영화가 극장을 찾았습니다. 영화를 만나기 위해 많은 관객들 또한 극장을 찾았을 것이고, 관객을 만나기 위해 많은 감독들 역시 극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2년 만에 개봉한 작품으로, 첫 장편으로, 3부작의 두 번째 이야기로,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로, 새 걸음을 떼고 새 숨을 고르는 감독들. 이들의 극장 방문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극장을 찾아온 감독들에게 올해의 극장 방문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선보이고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뒤 이어질 시간은 어떻게 채워 나갈지.

열지 마, 췌지 마, 부활할 거야



시네마달 배급팀 김하늘

〈그림자들의 섬〉 김정근 감독

지난 8월 25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은 한진중공업을 통해 그림자처럼 어둠에 사라져가는 이 시대 노동자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미덕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곳곳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카메라에 있다. 이 영화 자체로도 힘이 대단하지만, 사람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달 덕에 더 많은 관객이 <그림자들의 섬>을, 그리고 노동자들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립영화 안에서 '웃으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있는 <그림자들의 섬>의 김정근 감독과 시네마달 배급팀의 김하늘 대리를 만났다.

<그림자들의 섬>은 2014년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개막작으로 처음 공개되었고 같은 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2년 만에 개봉한 것이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개봉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나? 영화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된다.

김정근(이하 정근): 되게 얼떨떨하다. 개봉이라는 게 마치 태풍을 겪는 일과 같다는 걸 이제 알겠다. 목표가 주어지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이라 과정이 힘들진 않았다. 좋은 경험이었다. 역시 개봉은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김하늘(이하 하늘): 시네마달에서 올해 개봉한 작품이 <거미의 땅>, <소꿉놀이>, <업사이드 다운>, <경계>, <그림자들의 섬>이다. 개봉을 처음 하는 감독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배급사니까 개봉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지만, 감독의 경우 개봉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약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니까.

<그림자들의 섬>을 배급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 궁금하다.

하늘: 인디다큐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처음 봤는데, 작품이 좋았다. 시네마달 구성원 모두가 같은 생각이어서 배급을 결정하게 됐다. 개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P&A 비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통 다큐멘터리엔 투자사가 없고, 감독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도 힘들고 배급사가 사내 보유금을 가진 상황도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으로 개봉을 진행하게 됐다.

정근: 올해 이 시기까지 개봉한 독립다큐멘터리 중에 <그림자들의 섬>의 관객 수가 제일 많다는 얘길 들었다. 10월 초인 현재 4,2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지금 이 숫자를 넘기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여러 사회단체를 직접 만났다. 연분홍치마의 장병권 배급PD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인프라를 통해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 방식이 주효했던 거 같다. 결국에는 몸으로, 각개로 깨는 방법 외엔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하늘: 개봉을 준비하며 감독과 배급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종합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다. 배급 전략 안에 이 영화를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시네마달이 늘 사회 이슈를 가진 영화를 개봉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일반 관객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다. 마케팅 콘셉트를 정할 때 맨 처음 얘기했던 게 휴머니즘 요소를 강조하자는 것이었다. 최근 사람에 집중하는 다큐멘터리가 여럿 나오기도 했고 한진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감독의 연출 의도이기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종합했다. 현재 누적 관

객 수를 놓고 보면 시사회나 단체 관람으로 본 관객이 2천 명 정도고 일반 관객도 2천 명이 넘는다. 일반 관객 2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올해 개봉한 다른 다큐멘터리 스코어 이상이 된다. 물론 기준에 따라 4천이라는 숫자는 초라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이 이야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정근: 적절한 방식으로 홍보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디테일하게는 포스터 디자인까지. 웃기는 표현이긴 한데, '이래서 시네마달과 일을 하나?' 싶었다. 신뢰를 갖고 할 수 있었다.

아까 일반 관객들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관객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지?

정근: 기본적으로는 2-30대 청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자신의 노동에 예민한 시기에 있는, 노동 문제를 사회적 경험으로 겪었거나 자신의 문제로 느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하늘: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10대 후반부터 2-30대가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해주었으면 한다. 세월호 관련 영화를 개봉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림자들의 섬>도 젊은 관객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들이 앞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갈 세력이니까.

시네마달은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담은 작품을 배급해왔다. 현실을 담은 작품들로 일을 하다 보면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같다.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도 상당할 것 같고 감독과 출연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늘: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미안함과 만족감이 계속 작동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다큐멘터리 할 때, 이 영화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데 보탬이 되었다는 만족감도 있지만 개봉이 마무리되어 그 작품으로부터 벗어나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계속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인 것 같다. 나는 활동가인가, 직장인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놓인다.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고, 종영 후에도 관심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영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김정근 감독은 몸을 쓰며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에게 어떻게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었나?

정근: 지금까지 인터뷰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도출한 결론은, 몸을 써 일하는 사람과 거대한 기계의 대결이 내게 인상 깊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마치 신화적 그림 같은,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다. 기계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데서 오는 경이로움이 있고, 몸을 써 일하는 것에 대한 경외도 있다. 미학을 따지는 감독의 입장에서 그렇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노동자고 과거에 공장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각광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영화를 찍을 거다.

하늘: 노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배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점차 더 힘들어지겠구나 싶다. 상황이 눈에 뻑히 보이니까.



김정근



김하늘

정근: 만드는 입장, 창작자로서 드는 생각도 있다. <그림자들의 섬>이 이만큼 스코어가 나온 건 시네마달과 감독과 PD가 엄청 뛰었기 때문이고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개인적 애정과 별개로, 창작자로서 내가 들려주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과 보여주고 싶은 것에 대한 미학적 몰두로만 영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동자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촬영했다. 그들과 친밀해지고 관계를 지속하는 본인의 비법이 있는지? 무조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근: 확실히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실하고 꾸준해야 한다. 희망버스 당시 한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만들어 외부로 공유하는 조직에 있었다. 그 조직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기에 그 안에서 노동자

분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내 나름의 동력이 생겼다. 말하자면 '시민권'을 얻는 과정이 있었다.

전작인 <버스를 타라>와 달리 인터뷰가 영화의 중심이 된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했던 건지, 아니면 작업을 하면서 목소리를 직접 담아야겠다고 판단한 건지 궁금하다.

정근: 원래는 한진 노동자들의 복직까지 찍을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최강서 열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물어보고 싶었다. '나는 도망갈 것 같은데, 왜 계속해요?' 투쟁의 기록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동료들 떠나보낸 사업장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애도가 이뤄지는 부분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인터뷰로 구성을 했던 거다. 이들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이 영화는 당연히 이렇게 안 나왔을 거다. 내가 찍은 날카로운 장면들로 조합된 다큐멘터리가 됐겠지.

인터뷰이 선정의 과정도 궁금하다.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냈나?

정근: 친분으로만 선정한 건 아니다. 일하는 파트, 연령 등을 고민했다. 인터뷰이 기왕이면 깊이 몰입해서 1부터 100까지 겪은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형태로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각 두세 시간, 길게는 네 시간까지 시간을 비워서 진행했다. 영화의 시작과 끝처럼 인터뷰도 동일하게 각자의 입사 이야기부터 시간의 흐름대로 했다.

영화에서 두 분 각자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정근: 배 진수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그 장면이 영화의 정서인 거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이 발을 말리는 장면. 재연이 아니고 진짜 조선소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기름때, 낡은 작업화, 늙은 노동자 등이 한 번에 담긴 장면이라 나에게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다. 약간은 촌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나의 인장이기도 하다.

하늘: 이문세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 기존의 노동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이라면 그 음악을 썼을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은 흔히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여러 부분 벗어났다는 점이다. 음악뿐만 아니라 CG를 사용한 방식도. 새로운 세대의 감독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배급사가 가진 욕심 중에 하나는 감독을 키우는 것이다. 새 감독을 찾아 알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 때문에 <그림자들의 섬>은 정말 많은 애정을 쏟아 배급한 작품이다.

관객들이 주의 깊게 봐주었으면 하는 장면이 있는지?

정근: 장면보다는 주인공들의 얼굴에 집중하여 표정 변화를 봐주었으면 좋겠다. 첫 상영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 못할 우주가 있지 않나. 노동 다큐멘터리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관객에게 새로운 재미로 다가왔을 수 있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부차적 요소였던 것 같다. 결국 내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표정이다.

요즘 독립영화 배급사에서 주력하는 것이 공동체 상영이다. 이 둘은 시네마달의 강점이기도 하고. <그림자들의 섬>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하늘: 이렇게 특화되기 시작한 게 <경계도시2>, <두 개의 문>부터였을 거다. 내가 입

사하기 전부터다. 여전히 공동체 상영은 그 나름대로 잘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라면 더 확장될 구석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작품에 따라서 규모가 커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체 공동체 상영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상영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극장 개봉이 잘되면 잘될수록 공동체 상영도 잘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 상영은 부가 서비스인 거다. 개봉을 잘하고 잘 이끌어서 공동체 상영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전체 순환적인 배급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정근: 공동체 상영을 시네마달에서 잘하고 있지만 특별히 선호하는 상영 방식이어서라기보다는 여러 방식과 채널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기 위해 취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이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림자들의 섬>을 개봉하기로 했을 때 제일 처음 염두에 둔 건, 욕심 없이 짧게라도 극장에서 영화를 톤 다음에 공동체 상영으로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원래 개봉에 큰 욕심이 없었다. 일단 달려보니 빨리 달리고 싶고 많이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다.

하늘: 공동체 상영을 하는 대부분의 작품이 다큐멘터리다. 공동체 상영이라는 게 사회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를 알리는 방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개봉이다. 이를테면 공동체 상영을 위해서 작품을 알리는 일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그나마 지금 이 환경 안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개봉인 것이다.

현재 독립영화 배급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두 분 모두 몸소 겪고 있으니 느끼는 것이 분명 있을 것 같다.

하늘: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중 시네마달을 통해 개봉한 작품의 비율이 꽤 높다. 다큐멘터리가 손이 많이 가고 어렵다. 마케팅적인 요소가 특별히 좋은 장르도 아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포인트가 없으면 이 상황이 계속 심화되겠구나 생각한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관객들은 점점 더 줄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다른 독립영화 배급사들도 비슷하다. 좋은 날이 올 테니 버티자, 버티자 하다가 지금은 그저 살아남자, 살아남자 하고 있다.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이다. 독립영화 극장들도 그럴 것이다.

정근: 얼지 마, 죽지 마, 부활할 거야.(웃음)

하늘: 씁쓸하다. 몇 작품이 '대박'이면 그만인 구조가 언제까지 반복될까. 너무 불안정하다. 다들 그야말로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작품 당 1만5천 명 정도 보면 정말 좋겠다. 그 정도 수익을 내면 조금이나마 세이브할 수 있고, 나중에 원하는 작품을 개봉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다큐멘터리 개봉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공적 자금을 받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

서 벗어나려면 꾸준히 작품마다 일정 관객 이상이 들어야 한다.

정근: 창작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매력적이고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두 개의 문>이다. 그 작품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다. 당시의 상황이나 '스카이(SKY-쌍용, 강정, 용산)'로 불린 연대 단위의 힘도 기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잘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가진 힘이 섰던 거고 그래서 밀고 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 드는 생각은 1만 명이 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가 아니라 동일한 소재 안에서 어떻게 훨씬 매력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다. 다큐멘터리는 우리끼리 즐기고 만드는 게 아니다. 영화는 결국 관객을 만나야 하고 진정성과 진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듣던 이 기차에 올라타 같이 달려보았는데, 척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하늘: 세상에 내놓으면 다 볼 줄 알았는데 안 본다.(웃음)

각자의 위치에서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계획이 궁금하다.

하늘: 영화를 통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관객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싶다. 판단까지 정해줄 순 없고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면 좋겠지만, 강요할 순 없다. 계몽가는 아니니까.

정근: 나는 사실 계몽가다.(웃음)

하늘: 창작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창작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입장은 좀 다르다. 시네마달의 주 사업은 개봉이니 좋은 작품들을 발굴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이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시네마달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 키워나가려고 한다.

정근: 매력적인 영화도 만들어야겠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영화를 하다 보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명하고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음 영화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매력적이라는 표현은 역설이다. 내가 다른 대상, 당기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의구심을 느낄 때가 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지금 나에게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은 다음 작품인 <언더그라운드> 작업 중이다. 지하철 노동자를 찍고 있는데, 3개월째 현장을 못 갔다. 개봉이 정리되는 시점이 오면 다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날 거다. 조금 쉬고 싶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던 거 다시 열심히 하고 싶다. 끈질기게.

진행 및 정리 이은지 / 사진 유수진

마음이
부딪혀
흐르는
이야기.

〈우리들〉이
만나는
삶의
기적
같은
순간들

〈우리들〉 윤가은 감독

“내가 봤는데, 금 안 밟았어” 피구가 한창이던 어느 여름의 운동장. 작은 말 한 마디, 미묘한 눈빛만으로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유년시절의 기억. 친구의 마음을 얻고 싶어 부단히 애쓰고 그 마음 놓칠세라 아슬아슬 줄을 타던 감정들이 피어오르는 영화가 있다. 영화 속 이들의 이야기면서 극장 안 우리들의 이야기인, 〈우리들〉. 올해 첫 장편을 개봉하며 관객들과 만난 윤가은 감독을 만나보았다. 〈우리들〉이 관객과 만나야했던 수많은 이유들과 그 만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올해 첫 장편 <우리들>을 개봉하고 오랫동안 관객과 만났다. 그 사이 부일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상 소감과 <우리들> 소식을 짧게 부탁드린다.

<우리들>은 10월 중순 아트나인에서 상영될 코멘터리 GV를 마지막으로 종영했다. 시원섭섭하지만, 네 달이나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왔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부일영화상 신인감독상은 분에 넘치게 큰 상 같아 감사하다. 사실 평소 정말 좋아했던 감독, 배우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너무 흥분해버려 상 받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웃음) 수상 후 다음날부터 공포가 밀려온 것 같다. '앞으로 영화 더 똑바로 만들라고 주신 상이구나, 빨리 다음 작품 열심히 준비해야지.'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많은 관객이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을 정도로 큰 여운을 남긴 영화였다. 웬지 한 번씩 꺼내보고 싶은 매력도 있고, 감독이 생각하기에 관객들이 <우리들>의 어떤 부분을 좋아해주는 것 같은가.

사실 <우리들>은 자전적인 가지에서 뻗어나간 이야기다. 시나리오 작업 때 영화사나 스태프들이 이야기를 지지해주긴 했지만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떠올리며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 영화를 받아들여 준 것이 굉장히 놀랍고 고맷다. 친구관계는 유년시절 누구나 처음 겪는 사회관계이기도 하니까 <우리들>이 그 유년의 향수를 소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개봉하고 뒤늦게 하게 됐다.

어린이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과 작은 행동들까지, 오히려 한 시기를 담아놓은 것 같은 영화다. 어떻게 깊이 묵혀둔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다시 그려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유년 시절을 내 기억에 의존해 표현하기엔 너무 오래전이라 잘 떠오르지 않았다.(웃음) 영화를 만들기 직전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과 만나는 접점이 많다보니 본의 아니게 관찰이 된 부분도 있다. 시나리오 작업 때는 자료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 학교 선생님들을 수소문하여 만나기도 하고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좀 안쓰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아이들은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보니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고민을 상세하게 풀어 놓기도 한다. 인터넷 글만 읽다가 일주일이 가기도 했다. 시

나리오가 잘 안 써지면 노트북 들고 초등학교 근처 카페나 분식집으로 들어가 기웃기웃거리기도 했는데,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학부모인 척도 해봤다.(웃음) 아이들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면서 여러 방식으로 자극이 되더라. 책임의식이 생겨서 정신 차리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유년시절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나 경험해봤을 이야기인데,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다.

사실 <우리들>의 어린 배우들은 시나리오 없이 연기를 했다. 2년이나 시나리오 작업을 했지만 정작 배우들은 시나리오 없이 내가 말로 던져주는 상황 속에서 연습을 했다. 고정된 글의 힘이란 게 너무 세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나온 지문과 대사에 이 배우들이 쉽게 함몰되지 않을 바랐다. 다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오늘은 네가 친구를 위해서 뭘 훔칠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하는 식으로 상황을 만들고 필요한 대사들이 있으면 가급적 이들이 평소 사용하는 말을 쓰게끔 유도해냈다. 연기를 처음 해본 배우들이라 대본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할까봐 "우리는 친구들끼리 매일매일 학교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그 안에서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상처도 주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안심을 시켰다. 또 매일 겪은 일을 말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오히려 배우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다. 그러다보니 어린 배우들은 완성된 영화를 본 후에야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하는 반응이었다.(웃음)

배우들에게는 한 씩 한 씩 찍는 과정이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놀이 같았을 것 같다.

그게 나름의 고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뿌듯한 점이 있었다면 이 배우들이 촬영 현장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다. 대사를 외워오라고도 안 해, 매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듣고 맞장구 쳐줘, 연기하면서 몸도 움직이니 학교나 학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그 나름 풀렸던 것 같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촬영장 오는 것을 좋아해준 덕에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다.

<우리들> 이전의 세 단편 <사루비아의 맛> <손님> <콩나물> 모두 어린이의 시선을 담고 있다. 계속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이유가 있다면.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안 어딘가 아이가 살고 있나 봐요' 같은 대답을 하곤 했다.(웃음) 사실 깊이 있는 질문이라 그럴듯한 답변



을 하고 싶었는데, 왠지 스스로 대답을 지어내고 있는 것 같고 고민을 할수록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내 마음 깊은 곳의 작용을 좀 더 지켜보고 싶다. 다만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건 맞다. 특히 생전 처음 맞닥뜨리는 어떤 사건을 어른보다 아이들이 겪을 때 더 강렬히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쓸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의외의 선택을 통해 삶에서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치길 바라는 응원을 담게 된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꾸준히 하게 될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이들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다니던 피아노 학원 옆에 유치원이 붙어 있었는데, 고작 나보다 몇 살 어린 유치원 애들을 참 예뻐해서 유치원 선생님들과 토끼 가면을 50개씩 만들곤 했다.(웃음) 지금은 어른이 되긴 했지만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면서 내 시선을 아이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 지금의 생각과 그 때의 생각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렸을 땐 용기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들>은 앞서 만든 단편 <사루비아의 맛>이 확장된 느낌도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까. 보통 학교폭력이라 표현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한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 미묘하다. 그런 관계에 늘 관심이 많아 대학생 때는 소설을 써보기도 하고, 그림책 형태로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우리들>이 나오기 전 고등학생 버전으로 트리트먼트를 쓰기도 했고. 영화로 처음 시도한 것이 단편 <사루비아의 맛>이었는데, 이어진 장편이 같은 맥락을 담은 <우리들>이 되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스스로 알게 됐다.

고등학생 버전도 기대가 된다.(웃음) <우리들>이 전작 단편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버전은 연극반 친구들 이야기로 권력과 암투가 더 처절하다.(웃음) 비극적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다시 읽어봐야겠다. 고등학생이니 <우리들>의 3탄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싸우고 화해하고. <우리들>을 쓰면서 사실 전작들을 직접적으로 떠올리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던 이야기라 맞닿는 부분이 생긴 것 같다. 사실 <우리들>은 처음 트리트먼트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다. <우리들>을 시작하게 됐던 버터플라이프로젝트에서 시나리오 멘토였던 이창동 선생님께 이야기가 '가짜 같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믿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단편 찍던 것처럼, 재미없더라도 내 이야기를 해보지 뭐'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사건과 장치를 다 빼고 감정이 움직이는 이야기를 써가면서 전작 단편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 특히 <사루비아의 맛>은 지금 보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적어도 이상한 수 쓰지 않고 만든 첫 영화라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단편과 장편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다를 것 같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르던가.

정말 길었다.(웃음) 6회차로 완성한 단편이 가장 오래 찍은 경험 이었는데, <우리들>은 30회차였다. 30일 동안 계속 촬영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장편과 단편 준비 과정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험이었는데, 단편이 손 안에 잡힐만한 느낌이었다면 장편은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다 도망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저예산이다 보니 단편은 짧은 기간 동안 PD와 내가 어떻게든 수습을 하면 해결이 됐지만, 장편은 그게 되지 않더라. 프리프로덕션을 6개월이나 했음에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새삼 영화라는 건 혼자 만들 수 없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다. 이제 와서 보니 시나리오 작업부터 개봉까지 3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장편은 장기전이다. 내 30대의 3년이 날아가다니. 다음 영화는 어찌지?(웃음)

배급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났으며 실제로 <우리들>이 관객과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배급사는 영화사와 투자사의 결정이었지만, 옛나인을 만난 것은 내게 가장 감사한 부분 중 하나다. 거의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나 또한 큰 책임감을 느꼈다. 보통 영화가

배급되기 시작하면 감독 손을 떠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의견을 존중해주고 끝까지 같이 간다는 느낌이 들어 외롭지 않았다. 배급 과정에서 관객과 만나며 영화 역시 갈수록 채워지는 걸 느꼈고 정말 감사했다.

어린 배우들이 관객과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며 활발한 에너지가 넘쳤다.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는 경험이 이들에게도 값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해 줬다. 어린 배우들은 관객과 직접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때로는 싸인을 해주는 경험이 전부 처음이다. 처음엔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아, 영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찍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 감독으로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

5만 명에 조금 덜 미치는 관객들이 <우리들>을 만났다. 개봉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처음 목표는 만 명이였다. 올해 정말 좋은 독립영화를 많이 봤는데, 특히 <4등>을 보고는 내 영화가 이 영화와 정말 같은 해에 개봉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원래 어떤 영화를 보든 관객 수를 체크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 영화를 개봉하려고 보니 살펴보게 되더라.(웃음)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생각보다 관객 수가 많지 않고 상영관도 하루 단위로 싹둑싹둑 줄어들었다. 영화의 좋고 나쁨을 떠나 독립영화가 설 환경 자체가 부당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았다. 그런 터라 <우리들> 개봉을 앞두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았는데, 막상 개봉을 하니 1주일 만에 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영화를 만들며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과 개봉을 위해 애써준 배급사 식구들을 생각하니 결국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영화가 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상처 받은 내가 있었고.(웃음)

<우리들>은 개봉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충분한 상영관을 확보 받지 못했다. 실제로 느낀 독립영화의 개봉 환경이 궁금하다.

이른바 다양성영화를 위한 시장의 뒷받침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유들로 작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영화를 선택할 때 관객들을 믿지 못하고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직접 개봉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영리한 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바람과 이럴수록 더 용기 있게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 내가 더 스스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앞으로도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할 예정인지, 신작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다.

몇몇 곳에 이미 중학생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들>도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주인공이 바뀐 이야기라 이야기 역시 주인공이 성인이 될지 혹은 더 어려워질지 확신할 수가 없다.(웃음) 중학생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현재의 내 고민들을 담고 있다. 다만 그런 고민들이 성인보다 아이들이 주제일 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다. 언젠고 힘이 닿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떤 사건 자체보다도 마음들이 속에서 부딪히고 솟아나는 그런 이야기. 아직은 시나리오를 쓴다기보다 책 많이 읽고 초안을 그려가며, 열심히 달려가려고 품을 잡고 있다.

진행 및 정리 김도란 / 사진 유수진



고민과 애정을 발판 삼아 영화를 만든다



〈스틸 플라워〉 박석영 감독

박석영 감독의 <들꽃>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개봉한 <스틸 플라워> 역시 정하담이라는 배우를 통해 깊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며 주목을 받았다. 최근 그는 서울독립영화제2016 개막작으로 최초공개될 <재꽃>의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들꽃>으로 시작해 <스틸 플라워>를 거쳐 <재꽃>으로 마무리 될 '꽃 3부작'은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어 왔을까. 박석영 감독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떠한 계기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나.

처음부터 영화에 흥미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글 쓰는 것에 로망이 있어서 전공도 국문과를 택했다. 대학 진학 후엔 연극반에 들어갔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어서였다.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하듯 유학을 갔는데, 랭귀지 스쿨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몇 편씩 영화를 빌려 보는 거였다. 그때 유럽 예술 영화를 많이 봤다. 참 재미있고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당시 유학 중이던 학교가 뉴욕에 있었는데, 예술에 조예가 깊은 친구들이 많아 영향도 받았다. 그렇게 20대 중반에 영화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도 컬럼비아대학교 영화 전공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다 대학원을 중퇴하고 귀국하며 영화 촬영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10년 이상 미국 생활을 했고,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막막한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무작정 대학교 선배인 전계수 감독에게 영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전계수 감독이 만들던 영화 <뿔 또 그렇게까지> 촬영팀 막내로 영화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던 중, 촬영 마지막 날 전계수 감독이 자신이 준비하던 시나리오를 함께 써볼 것을 제안했다. 온갖 어려움 끝에 간신히 초고를 썼고, 판권 계약을 맺었다. 약 3, 4년 동안 시나리오 한 개를 붙들고 작업을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여전히 그 시나리오는 영화로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긴 시간을 기다리며 버티는 건 어려웠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나리오 탈고와 별개로 영화를 준비하게 된 것이 <들꽃>이다.

<들꽃>은 이전부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작품이었다.

처음부터 만들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준비하던 시나리오는 사회 스릴러 장르의 시대극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흥대 놀이터에서 빈 병을 마구 던지는 한 여자아이를 보았다. 구경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정말 지옥 같은 풍경이었다. 그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YMCA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순수한 호기심이 살아 있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다가왔다. 아이들이 인간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믿음, 공포와 같은 감정적인 리얼리티에 집중했다. 감정적으로는 리얼리티를 추구해도 보여주는 사건들은 철저하게 구축하려 했다. 다뤄진 리얼리즘이 매우 변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다. <들꽃>에 등장하는 청소년 인

신매매는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들꽃>을 만든 건 아니었다. 그저 영화를 본 뒤 계속 아이들이 눈에 밟히기를, 그저 나쁜 아이들로만 받아들여지기 싫길 원했다.

<들꽃>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포스터 피켓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들꽃>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첫 상영을 하게 되었을 때, 낮은 인지도의 영향인지 티켓이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배우들이 전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상처를 줄 수 없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포스터를 뽑아 피켓을 들었다. 그런데 우연히 옆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작했다. 유가족 분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걱정되어 나가려고 하니, 그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피켓을 계속 들 수 있었다.

<들꽃>, <스틸 플라워>, 그리고 올해 촬영한 <재꽃>으로 이어지는 <꽃 3부작>은 <들꽃>을 만들던 시기부터 염두에 둔 것인가.

처음부터 3부작을 생각한 건 아니었다. 애초에 <스틸 플라워>부터 우연한 계기의 산물이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바로 전날이었다. 영화의 주연을 맡은 조수향 배우의 수상 소식을 들었는데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계속 세월호 생각이 맴돌았다. 그런 기분으로 한 감독과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차기작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꺼냈다. '한 여자아이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터덜터덜 걸어 나간다. 카메라는 그가 걸어난 빈자리를 비추고, 탭댄스를 추는 소리가 들린다.'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치유가 된 것 같았다. 바로 정하담 배우에게 이 트리트먼트를 말했더니 좋게 받아들여줬다. 그렇게 <스틸 플라워>를 구상하게 되었다. 오디션은 따로 없었다. 폐막식장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정하담 배우의 모습을 본 게 오디션을 치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들꽃>과 <스틸 플라워>의 분위기가 전개가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것인가.

두 작품 간에 차이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나는 영화에서 시나리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덩어리라 생각한다. 시나리오는 그 감정을 풀어내는 방식이다. 이미 있었던 감정에 대한 일종의 현장 반응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 굳이 인물과 사건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작품이 담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나는 <들꽃>을 전쟁영화라 생각했다. 전쟁영화는 사건을 비운



리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인물 사이에 튀는 스파크를 찍어야 한다 생각했다. 반면 <스틸 플라워>는 신화적인 존재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애초에 접근 방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들꽃>에는 피상적이어도 관계는 있지만, <스틸 플라워>에서 주인공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 마치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 신, 일종의 원형 질과도 같은 존재라 생각했다. 그래서 정하담 배우에게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너는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하담 배우는 그 역할을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소화했다. 그때도 지금도, <스틸 플라워>는 다시 작업하기 어려운 영화라 생각한다.

<들꽃>부터 <재꽃>에 이르기까지 계속 정하담을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있다.

정하담 배우는 작중에서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기를 원했다.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존재니까. 하지만 우리 둘 다 영화를 찍으면서, 인간은 완벽하게 서로를 모르지만 서로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 깨달음을 공유했기에 3년 동안 계속 작품을 같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과정은 결코 계산적이지도 그렇다고 쉽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꽃>을 끝으로 이젠 정하담 배우를 떠나보낼까도 한다.

<들꽃>과 <스틸 플라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극장에 걸릴 수 있었나.

<들꽃>을 찍고 나서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게 되었을 때까지도 한국에서의 독립영화 개봉이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지, 홍보마케팅은 얼마나 제한된 자원으로 부딪치며 해내는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영화를 찍었고 영화제에 가게 되었으니 극장 개봉은 당연한 과정이라 낭만적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들꽃>은 영화제 전에 이미 인디플러그와 배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상업성도 스타성도 없는 영화의 국

내 배급을 결정했다는 것이, 작품에 대한 아름다운 지지였던 셈이다. 독립영화 배급사에는 영화를 배급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기업으로서의 기본 이슈와 함께,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시간과 애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독립영화인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디플러그와 함께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스틸 플라워>는 인디스토리와 함께 배급했다. <들꽃> 때 경험에 비추어 좀 더 많은 관객을 깊이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여러 면에 걸쳐서 성심을 다하는 인디스토리의 진행으로 다양한 홍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인디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심, 창작자 중심의 배급 과정에서 비롯된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작품 모두 관객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들꽃>도 <스틸 플라워>도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관객 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창작자 개인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급사의 실질적인 피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독립영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극장의 생존과도 연결되는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슬픔이 가장 컸다. 영화를 사랑하지만 개봉까지의 과정에서 허탈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내 영화로 인해 기대와 실망과 아픔을 경험한 모두에게 마음의 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만들고, 영화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예의일 테니 열심히 마무리하고 싶다. 많은 슬픔을 겪었고 앞으로 <재꽃>을 배급하며 또 겪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있어서 잘 견딜 거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관객들 앞에 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창작의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헌신적 손길이 필요하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지금 독립영화 배급사들과 극장들이 더욱 더 강하게, 작은 영화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한다.

<들꽃>과 <스틸 플라워> 외에도 많은 독립영화가 관객과 멀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독립영화의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이 있는지.

아직 독립영화를 만든 지 3년 밖에 안 되었고, 나의 경험에 미루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독립영화를 관객 수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독립영화가 개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축하할 일이고, 개봉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 역시 축하할 일이다. 아예 개봉조차 하지 못하는 작품이 수록하기 때문이다. 세간의 평가도 절대적인 중요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독립영화에 대해 상업적이나 아니냐, 작가주의적이나 아니냐는 말이 많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극장을 얻고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다. 작품들, 좋은 작품들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홍보할 돈은 없다. 물론 작계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상영권이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을 텐데, 아예 여지 자체가 없으니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예술영화관이 더 생기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사라져가는 판국이지 않나. 결국 정책과 싸워야 한다. 전국 각지에 독립영화전용관이나 시네마테크가 생겨야 한다. 짧은 생각이지만, 독립영화가 좀 더 많은 관객들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공간에서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시스템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솔직히 현재의 상영 방식도 관습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들고, GV를 하고 끝난다. 지금의 방식에 안주하는 대신 좀 더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으면 싶다. 다양한 영화인이 힘을 모아 프로그래밍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답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계속 패배감에 빠질 수도 없지 않나.

물론 아마 많은 이들이 이미 고민을 쌓아왔을 것이다. 방금 한 말들은 그저 짧은 시간 동안 보고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 독립영화가 좀 더 다채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든다. 프로그래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작품이 전반적으로 좋은 해가 있고 나쁜 해가 있다고 한다. 단순히 한 해만 가지고, 몇몇 작품들을 가지고 전체 독립영화의 수준이나 경향에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흐름을 알 수 있게끔 다양한 작품이 관객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극장이 필요하다.

차기작 <재꽃>이 서울독립영화제2016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진다.

<재꽃>은 사람에게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어떤 점에서는 집에서 떠나는 이야기이자, 우리가 서로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너무 추상적인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 정리하자면 정착한 주인공이 살던 마을에 한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영화다. 전작과 달리 <재꽃>의

하담에게는 집이 있다. 하담은 아이를 구하고, 아이는 하담을 과거에서 구한다. 둘은 알 수 없는 곳으로 여정을 떠날 용기를 낸다. <재꽃>은 자립과 위로에 대한 영화이자 동시에 내 자신과 배우에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다. 일종의 '유사가족'에 대한 작품이자, 기억에 대한 이야기기도 한 것이다.

<재꽃>은 충남 당진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전작이 도시를 배경으로 촬영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반된 지역이 전면이 세계 되는데.

큰 이유는 없다. 그 곳에 하담이 살만한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작들이 도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주인공이 정착할 곳을 가지고 산다. 예전에 흔히 접하던 시골집 같은 장소가 필요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관계하고 만나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담이 따뜻하게 같이 있는 모습을 찍고 싶었다. 마당이 있고, 텃마루가 있고 그 안에서 씻고 밥을 차려 먹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간 작품들에서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영화적인 선택을 우선시한다기 보다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우선하는 것이다. 여기가 이 캐릭터가 있을 곳인가를 먼저 생각했다. 대부분의 요소가 그렇게 선택됐다. 어찌 보면 이상한 작업 방식이다. 보통은 작품의 구조를 다 만든 뒤에 영화를 찍는데, 나는 거꾸로 했다. 캐릭터의 취향을 배우와 상의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전제는 감독 역시 작품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모른다는 점이다. 그 캐릭터를 찾아가는 과정이 곧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다.

<재꽃>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신작을 촬영할 예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간이 인간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3개월가량의 프리프로덕션을 위해 연말에 아프리카로 건너갈 생각이다. 그 밖에도 1년에 두 편씩, 총 10편의 작품을 구상 중이다. 일종의 <십계> 같은 작품이다. 십계명을 바탕으로 둔 주제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재로 만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NOW>를 만드는 서울독립영화제에게 말하고 싶다. 서울독립영화제는 언제나 가고 싶고, 집 같은 기분이 들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고 행복한 기억들이 많은 영화제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늘 영화를 들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영화에 있어서는 나이 들지 않고 젊게 사는 곳, 영화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는 곳이라고도 생각한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한 해의 독립영화를 갈무리하면서 서로가 잘 몰라도 손잡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잘 견뎌고 좋아한다며 등을 토닥겨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다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

경쟁이라는 레이스를 벗어나서 바라보는 더 넓은 세상

〈걷기왕〉 백승화 감독



청춘이라고 어찌 다 같은 청춘이겠는가. 제각기 다른 개성과 삶의 비전마저도 한 뭉텅이로 엮어 꿈과 열정이라는 수사에 가두어 버리는 세상. 삶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에 약간의 반기를 들면서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영화가 있다. 바로, 백승화 감독의 <걷기왕>! 2012년, 현대 인디씬의 우주대스타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반드시 크게 들을 것>으로 독립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백승화 감독의 첫 극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만나 보았다.

NOW가 발행되고 나면 이미 <걷기왕>이 개봉한 후겠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오늘은 아직 10월 중순이다. 오랜 제작 기간을 거쳐 어느덧 대망의 첫 장편 극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백승화(이하 승화): 얼마 전까지 후반작업을 계속했는데 개봉하고 나면 시원섭섭할 것 같다. 일단 아쉬운 부분에 대한 미련은 많이 내려놓은 상태다. 드디어 끝났나 싶다.

언론시사회도 열었다. 기자, 평론가, 그리고 대중에게 작품을 선보인 기분은 어떤지.

승화: 언론시사회 때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잘 전달될지 궁금했다. 시나리오 쓸 때나 촬영이나 편집을 하면서는 그냥 한 편의 재미있는 영화로 봐 주시길 바랐는데, 상영을 앞두고 되니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독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언론시사회 후 나온 기사 중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써주신 글들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작품인 <반드시 크게 들을 것> 1, 2편이 모두 극장 개봉한 적은 있지만, 장편 극영화 연출과 개봉은 이번이 모두 처음이다.

승화: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은 워낙 예산도 낮았고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놀듯이 만든 영화였지만, <걷기왕>은 제작자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작품은 독립영화로 출발했지만,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사실상 이제 독립영화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러나 확실히 저 예산 영화인 <걷기왕>에 심은경이라는 검증된 배우가 참여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다른 영화들도 좋은 배우와 함께 작업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걷기왕>이 어느 정도는 잘되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이 가내수공업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면 <걷기왕>은 차근차근 기획 단계부터 거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승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혼자서 오타쿠처럼 오밀조밀하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한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는 적은 인원

으로 촬영할 수 있고 편집도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물론, 이야기의 전개나 결말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다. 극영화 작업할 때는 미리 짜인 것에 맞추어서 부분을 만들고 조립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는 재미가 있다. 다만 스태프나 제작 및 투자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영화감독이기 이전에 애니메이션 전공자, 상업 영화 스태프, 밴드 타바코쥬스의 드러머, 다큐멘터리 감독, 단편 영화 제작자였다. 본인 적성에 가장 맞는 건 무엇이었나?

승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직업으로 따지면 음악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뮤지션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좋은 곡을 만들면 자신의 창작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다. 어릴 적 꿈은 만화가였는데, 그 꿈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에서 영화로 옮겨왔다. 밴드 생활하면서 드럼을 쳤지만 그때 가사를 많이 썼다. 가사를 쓰면서 이야기랑 세계관을 만드는 게 좋았다. 처음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면 거기서도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결국,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다큐멘터를 하던 사람이 극영화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다. 평소에 극영화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나?

승화: 어찌하다 보니 다큐멘터를 먼저 찍었지만, 관심은 극영화에 먼저 가 있었다. 특히, 대학 시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한 번씩 여기서 저기로 걸어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수십 장을 그려야 하는지 의문을 느끼곤 했다. 사실 나라는 사람은 애니메이팅보다는 이야기와 움직임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니 그림으로 그릴 걸 카메라로 찍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다.

최초 기획 과정에서 나온 아이템은 천재 볼링 소녀, 오목에 재능 있는 소녀였다고 들었다. 결국, 청년, 스포츠, 여성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가.

승화: 처음에는 무언가 쓸데없는 걸 잘하는 주인공이 경쟁의 세계에 빠져든다는 설정 정도만 갖고 있었다. 알고 있는 대로 볼링을 소



남순아

재로, <데굴데굴 불링왕>이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썼었다. 그땐 어딘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인물이 어떤 일을 계기로 성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장이라고 해도 거창하기보다는 사소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을 다루려고 했지만,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한 남순아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요즘 TV를 보면 꿈과 열정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청년들에게 가하는 모종의 압박 같아 보였다.

(마침 인터뷰 현장에 있던 남순아 감독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마디 물었다) 시나리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승화: 기본적으로 글 쓰는 작업은 내가 했다. 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비롯해서 사소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했다.

남순아(이하 순아): 카페에서 함께 있으면 항상 작업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였다.(웃음)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

순아: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아울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한국영화와는 다른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다. 나는 약간 진지한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나리오를 읽고 '이게 말이 돼?'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다. 소가 내레이션을 한다든가, 그 전에 농가가 아닌데 소를 키운다든가.

승화: 실제로 만복이네 집으로 설정한 집에서 애완용 소를 키우고 있었다.(웃음)

평소 청년 세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걷기왕>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환기되기를 원했나?

순아: 만복이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인물들의 꿈과 열정까지도 펼쳐 보이고 싶었다.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 수지는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인데 그 열정이 잘못된 건가? 지연이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이 되는 게 잘못된 건가?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란 게 따로 있을까? 등등. 한 사람이 어떤 꿈과 열정을 품건 간에, 혹은 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평소 가진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화에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하나같이 경쟁, 자기개발, 노력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노력이란 어떤 의미인가?

순아: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열정에 대한 요구인 것 같다. 주인공 만복이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또 딱히 잘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만복이가 걷기에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개발하면 경보 선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수지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육상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겪은 바가 있어서 만복이에게 목숨 걸고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꿈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한 번씩은 좌절을 겪는다는 점이다.

승화: 시나리오 초고에는 수지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육상밖에 모르는 친구인데, 그 부담감이 조금은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쉬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만복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경쟁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했다.



백승화

영화가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또 중간 중간 코믹한 장면들이 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도 내레이션이나 편집을 통해서 웃음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는데, 본래 창작자로서 개그나 코믹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건지?

승화: 내가 차근차근 공부해서 영화감독이 된 경우가 아니라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톤을 가진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음, 사실 잘 모르겠다. 그저 내가 원래 엄청 웃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고 기분 좋아질 만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최근 독립영화계에서 ‘핫’한 박주희 배우와 김새벽 배우를 모두 캐스팅했다.

승화: 수지 역을 맡은 박주희 배우는 평소 다른 영화에서 냉소적이거나 차가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내가 박주희 배우를 처음 본 건 윤성호 감독이 만든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 스태프로 참여했을 때였다. 당시 노란 머리에 용이 그려진 점퍼를 입고 아프리카TV에서 BJ를 하는 여고생을 연기하고 있었는데, 박주희 배우는 지금도 그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실제 박주희 배우는 수지처럼 말을 툭툭 뱉기도 하고 또 코믹한 면도 갖고 있다.

장건재 감독의 <한여름의 판타지아>에 출연한 김새벽 배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걷기왕>에서 담임선생님 역을 맡은 김새벽 배우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승화: 캐스팅할 때 본인에게 그 역할을 제안한 게 의외였다고 하더라. 김새벽 배우의 실제 모습을 보면 얼렁뚱땅한 면이 조금 있는데, 가끔적 배우들이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부분과 캐릭터가 갖는 성격의 어떤 부분이 잘 맞기를 원했다.

극 중 만복이가 수지의 진료 기록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생일이 모두 11월 11일이라는 설정이 나온다. 사실 그 날은 <걷기왕>의 제작사인 인디스토리의 창립기념일이기도 하다.

승화: 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원래는 다른 설정이 있었는데, 그걸 생일로 바꾸면서 날짜를 빼빼로데이로 했다. 인디스토리의 김화범 이사가 소가 나오는 부분을 좋아했다. <워낭소리>를 배급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그런 것 같다. 앞으로는 11월 11일도 강조해서 말해야겠다.(웃음) 인디스토리와는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을 배급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걷기왕>의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때는 염려를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작품을 내 손으로 관리해가며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끝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승화: 일단 별 생각 없는 게 내 장점이다. 평소에 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실제로 <걷기왕>도 캐스팅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시나리오 쓸 때 중심을 못 잡은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적적으로 투자를 받고 캐스팅이 이루어졌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진행 및 정리 이도훈 / 사진 김수현

20대엔 독립영화 제작 시스템과 스태프 처우에 대한 고민을, 최근엔 권력화된 자본 앞에 어떻게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관객들에게 다가갈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 독립영화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독립영화를 알릴 수 있을까요?

강물에 빠진 달을 보러 가듯
새벽에 당신 사는 집으로 갑니다.

깨끗한 바람에 옷깃을 부풀리며
고개를 수그러뜨리고 말없이 걷는 동안
나는 생각합니다.

어제 부친 편지는 잘 도착되었을까
첫 줄에서 끝줄까지 불편함은 없었을까
아직도 문은 열려두지 않았을까
아예 열쇠 수리공을 부를까
아니야, 그건 일종의 폭력이야

(고정희, 「강물에 빠진 달을 보러 가듯」 부분)

고정희 시인의 「강물에 빠진 달을 보러 가듯」이란 시를 좋아한다. 새벽녘 혼자 몰래 사랑하는 이의 집 앞에 나가 자신의 마음을 적은 편지 하나를 문틈에 꽂아놓고 번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가슴 속에 그려지기 때문이다.

영화를 제작하고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특히 독립영화를 한다면 말이다. 언제 관객들을 만날지, 관객들이 영화를 본다면 어떠한 표정과 감정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은 독립영화인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부산은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영화도시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는 시민들과 영화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영화 상영회가 많다. 2007년 부산교육대학교 앞 공간초록에서 시작되어 한 달에 한 번씩 환경과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열린 대화를 하는 '초록영화제', 오지필름과 국도에술관이 함께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극장에서 보기 힘든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다큐싶다', 그리고 관객을 영화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능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함께 행동하려 하는 '모통

이 극장' 등 수많은 부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영화상영회가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영화를 제작한다는 핑계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가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상영 현장에 가게 되면 시민들, 활동가들은 손편지 쓰듯 수줍게 자신의 영화 감상평과 영화와 관련된 일상 이야기를 건네주었고, 카메라 뒤에 숨어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하였다. 이러한 대화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질문 2개를 뽑자면 "독립영화는 무엇입니까?"와 "어떻게 하면 독립영화를 볼 수 있어요?"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독립영화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쉽게 답했다. 부산에는 영화의 전당, 국도에술관, 아트씨어터 씨앤씨 등의 독립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도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과 IPTV에서도 독립영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흔한 이야기를…….

그러다 되돌아오는 한 시민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항상 독립영화 감독, 활동가들을 만나면 독립영화엔 접근성, 주제적인 활동 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저희 같은 일반 관객은 독립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독립영화에 대한 정보가 요원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무조건 독립영화를 알아주세요, 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나의 고민이 부산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 배급하는 것,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면 최근 화두는 어떻게 일반 시민들에게 독립영화를 알리는 것이냐다. 자본이 있어 인터넷 포털이나 미디어 등에 정기적인 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NS를 통한 독립영화 홍보도 사전 정보를 가지지 않은 이들 입장에서 접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독립영화를 알릴 수 있을까? 시민 한 명, 한 명을 만나서라도 알리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고민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답은 하나가 아니다. 독립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독립영화를 알리는 행동 또한 다양할 것이다. 그렇기에 그 고민과 행동들을 같이 가져가고자 한다. 나 혼자만 아닌, 함께 나누는 것으로.

임흥순, <비념>

그 해 여름,
나는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다



먼저, 내가 느꼈던 막막함에 대해 고백을 해야겠다. '다른 영화 말고 너'에 글을 써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게 의미 있는 독립영화 한 편을 끄집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를 본 후 영화의 이모저모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떤 영화에 딱 꽂혀서 소위 '테이프가 늘어도도록' 본 경험이 많지도 않거니와, 공부용이 아니면 한 영화를 몇 번씩이나 돌려보지 않는다. 물론, 마음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작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그 막막함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같은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느낀 감정과 동일하다. 어떤 영화가 내 취향의 영화인가.

문득 하나가 떠올랐다. 임흥순 감독의 <비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임흥순은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간>을 만든 작가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는 무엇보다 <비념>의 감독이다. 왜 '다른 영화 말고' <비념>이나 하면, 영화 그 자체의 이야기보다도 이 영화가 나와 맺었던 특별한 관계 때문일 거다.

사연을 말하자면 이렇다. 나는 <비념>을 2012년도에 영화제에서 두 차례 보고 2013년도 개봉 후에 극장에서 두 번을 더 봤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영화를 꽤 본 셈이다. 영화제에서 미리 <비념>을 봤던 나는 정식 개봉을 앞두고서 여러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고 다녔다. 그리고 내가 활동하던 문화연대의 뉴스레터에 <비념>에 관한 짧은 비평과 임흥순 감독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지슬>이 평론가들과 대중의 시선을 끈데 비해, <비념>이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열이 났었다. 일종의 '팬심'이라고 봐도 좋다. 하지만 자평하자면 그때 쓴 글 두 편은 모두 졸작이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비평도, 실제 인터뷰도 처음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주술에 걸린 듯, 영화를 몇 번 관람하고 몇 개의 글을 썼다. 제주도는 4.3 사건이라는 슬픈 역사를 꺼안고 있는 땅이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억압 속에서 진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의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대규모 관광지 개발 문제는 안보와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의 자연과 도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비념>은 임흥순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과거의 밤과 현재의 낮을 연결한다. 6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4.3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의 상황을 겹쳐놓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여기, 당신에게 제주 4.3은 무엇입니까? 제목인 '비념'은 '제주에서 행하는 작은 곳'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는 국가폭력에 의해 처참히 죽어나갔던, 그리고 역사에 의해서도 배제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종의 곳 행위다. 나와 인터뷰 도중 임흥순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개인적인 작은 비념이 바로 이 영화다." 영화는 감독의 개인사로부터 출발한 작은 몸짓이지만, 한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현실의 모습과 역사적 상흔을 어루만진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비념>은 이렇게 미학적 순간을 성취해낸다.

아무래도 나의 영화 취향은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움직이게 한 영화다. 임흥순 감독의 <비념>은 나로 하여금 네 번이나 영화관을 가게 만들었고, 두 개의 글을 쓰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해 여름, 나는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혁규

NOW 기획위원으로 특집을 기획하고 몇몇 독립영화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영화 자체보다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핑계로 영화를 많이 챙겨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연대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문화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책과 영화가 있다. 1996년에 나온 책 『변방에서 중심으로』와 1997년에 나온 영화 <변방에서 중심으로>(이하 책과 영화를 아울러 '변방에서 중심으로'로 표기)가 그것이다. 한 명의 감독, 하나의 독립영화집단이 완성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 당시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와 당면과제를 정리한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감독이자 책임집필자였던 홍형숙 감독을 만나 작업을 하게 된 계기와 제작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TELL ME SOMETHING은 독립영화에 대한 개인들의 기억을 직접 들어 보는 일종의 구술사 코너다.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지는 사건, 사고, 에피소드를 통해, 독립영화의 중요한 고비들을 다시 기록하려고 한다. 꼭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던 궁금한 사건 혹은 인물이 있다면 NOW로 연락 주시길. (편집자)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내가 작업하는 독립영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물이었어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이 이념적 깃발의 시대였다면 그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당시 사회변혁을 우선적 가치에 두고 활동했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을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좁은 영역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료 작업자들을 하나 둘 만나다보니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전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려면 이전의 역사가 궁금해졌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남의 영역을 넓히고, 그 네트워크를 따라가다 보니 80년대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선배 감독들을 만나 활동한 소그룹 이야기를 듣고, 당시 많아지던 개인 작업자들도 만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술사를 경험했죠. 한두 분 만나고 나서 이 기록이 자료로서 큰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업 방식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영상, 기록물, 성명서, 유인물, 창립선언서 등을 전부 받았어요. 특히 서울영화집단 출신 선배들은 수집벽이 있으신 건지, 희귀 자료들이 많았어요.(웃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며 작업을 했어요. 서울영상집단(이하 서영집) 회원들이 정리를 맡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붙던가, 여러 팀이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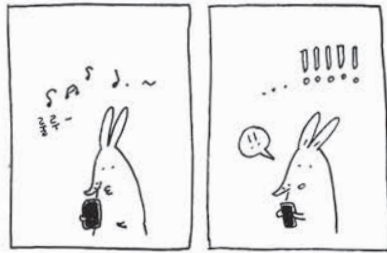
자료를 보다 보니 일차적인 정리는 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속에 전부 다 넣을 수 없거니와 놓치기에 너무나 아까운 자료들이었던 거죠. 이걸 독립영화인들이 같이 쓴 자서전이 되 서영집에서 담당을 자임한 거라 생각하고 책 작업을 시작했어요. 두 작업을 병행했지만 책을 먼저 완성하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어요. 출판기념회라는 방식이긴 했지만 일종의 '홈커밍데이'같은 것이었어요. 독립영화인들이 모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죠. 극장을 빌렸고 책에 나오는 사진 등의 아카이브로 전시회를 같이 열었어요. 하나하나 누가 제공했고, 어떤 자료인지 표기했어요. 영화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이 날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념 촬영을 하셨어요. 실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그 자리가, 여전히 영화를 하는 지금까지 통틀어 생각해 보더라도, 선배 동료들이 만났던 가장 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자리에서 인사도 나누고 소회도 듣고, 한 차례 정리된 마음으로 영화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영화 속 비디오아트 같은 부분은故분주 작가와 아내인 전미영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파일로 상영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디오 두 대를 놓고 직접 재생을 눌러가며 정확한 지점을 맞추느라 몇 번을 다시 찍고 그랬어요. 후줄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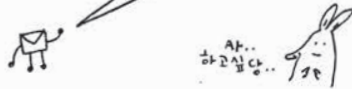
영화에도 등장하고 책에 추천의 글도 써주신 중앙대학교 이충직 교수님께 들은 일화가 있어요.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이 독립영화의 쟁점과 역사로 논문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초안을 제출했을 때 교수님이 제가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준비하며 소고를 취합해서 쓴 글을 보여주셨대요. 작은 집단에서도 이 정도의 연구를 한다며.(웃음) 다시 생각해봐도 여러 선배 동료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었고, 정말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 권은혜

< #3. 서울독립영화제와 추억여행 >



LUCKY DRAW
 서울독립영화제 2016
 "자원활동가" 모집!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본 본 후로..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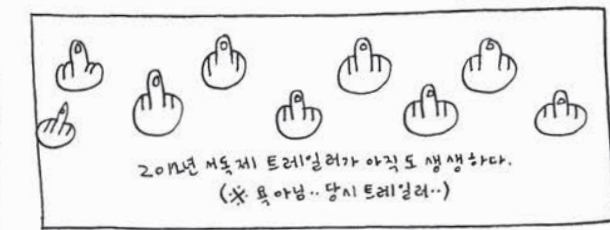
... 그래서 그려본 서울독립영화제
 자원활동가 추억기! -



스무살의 토끼리는
 서울독립영화제
 자원활동가를 지원했다.



결과는..
합격!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배포처**

- 서울**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CGV아트하우스 명동역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KT&G 상상마당 시네마
KU시네마테크
KU시네마트랩
더 북 소사이어티
멤스박스 홍대점
미디어엑트
상수동카페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성영태 커피하우스
씨네큐브
아디스아바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아트나인
아트하우스 모모
유어마인드
이리카페
인디스페이스
인디플러스
책방 만일
책방 이음
책방 풀무질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카페 공드리
필름포럼
한국영상자료원

-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헤이리시네마
- 강원**
강릉 물고기이발관
속초 동아서점
춘천 일시정지시네마
-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북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떼오)
- 광주/전남**
광주극장
광주 맥가핀
순천 책방심다
- 대구/경북**
CGV아트하우스 대구
동성아트홀
안동 중앙씨네마
오오극장

- 부산/경남**
CGV아트하우스 서면
FROM
국도예술관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창원 씨네아트 리움



NOW
NO.12 2016. 11. 14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발행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조영각,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승요, 김지은, 이도훈, 이은지, 최혁규
담당 김승요 **진행** 김지은, 봉수지 **디자인** 이혜경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윗길 65-5 (공덕동 82-9) 2층 (04205)
전화 02-362-9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siff@siff.kr **홈페이지** siff.kr / indienow.kr